

영산대-부산3개 어촌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위해 '맞손'

기사입력 2016.01.05 18:07:54 | 최종수정 2016.01.05 18:07:54 | 최원석 | ttisuk@cnbnews.com



▲ (사진제공=영산대)

해양관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어촌계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과 산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 눈길을 끈다.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해양레저사업단은 지난 31일 해운대캠퍼스 A동에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의 3개 지역 어촌계(해운대구 미포어촌계, 우동어촌계, 수영구 민락어촌계), (사)한국스포츠시설협회, (사)FEE-KOREA와 공동으로 '산·학·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항·어장과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레저상품의 개발, 어민의 해양관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어촌관광레저 홍보전략 수립, 어촌특화지원의 관광상품 개발, 자발적 어촌마리나역(驛)사업, 어촌관광레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토론회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과거 수산업 중심의 어촌항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레저·문화·휴식 공간 등이 복합된 명품 브랜드 어항으로 만들기 위한 민간 어촌계의 자발적 노력이 돋보인다. 이들 어촌계는 여름철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하여, 해파리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은 물론, 부산의 해양관광발전을 위해 생업인 미역양식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연안정비사업과 자율어업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철우 해양레저사업단장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해운대, 광안리에 위치한 3개의 어촌계가 한국 최고의 어촌관광지가 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최고의 도심어촌형 해양레저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어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는 동남권 체능계열 중 유일하게 교육부 특성화사업(CK-1)을 유치했다. 또한, 부산지역 해양레저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레저 전문인력 육성 및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콘텐츠 사업화를 위해 2차년도 '해양스포츠레저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스포츠시설협회와 (사)FEE-KOREA는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관광시설의 융합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CNB=최원석 기자)

최원석 (ttlsuk@cnbnews.com)

© 2004~2015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인쇄하기

영산대 부산어촌관광활성화위해 힘 모아

김종걸 기자 jgkim@idomin.com 입력 : 2016-01-05 16:33:27 화 노출 : 2016-01-05 16:33:00 화

해양관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어촌계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과 산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 눈길을 끈다.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해양레저사업단(단장 김철우)은 지난해 31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 반송동 대학해운대캠퍼스 A동에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의 3개 지역 어촌계(해운대구 미포어촌계, 우동어촌계, 수영구 민락어촌계), (사)한국스포츠시설협회, (사)FEE-KOREA와 공동으로 '산·학·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항·어장과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레저상품의 개발, 어민의 해양관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어촌관광레저 홍보전략 수립, 어촌특화지원의 관광상품 개발, 자발적 어촌마리나 역(驛)사업, 어촌관광레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토론회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에서는 과거 수산업 중심의 어촌향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레저·문화·휴식 공간 등이 복합된 명품 브랜드 어항으로 만들기 위한 민간 어촌계의 자발적 노력이 돋보인다. 이들 어촌계는 여름철 해수욕객의 편익을 위하여, 해파리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은 물론, 부산의 해양관광발전을 위해 생업인 미역양식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연안정비사업과 자율어업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해양레저사업단의 김철우 단장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해운대, 광안리에 위치한 3개의 어촌계가 한국 최고의 어촌관광지가 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최고의 도심어촌형 해양레저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어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협조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는 동남권 체능계열 중 유일하게 교육부 특성화사업(CK-1)을 유치했다. 또한, 부산지역 해양레저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레저 전문인력 육성 및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콘텐츠 사업화를 위해 2차년도 '해양스포츠 레저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스포츠시설협회와 (사)FE E-KOREA는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관광시설의 융합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걸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댓글 0

폰트

2016년 01월 08일 (금)

경남신문 > 사람 +

영산대, 어촌계 등과 '산·학·민 업무협약'

기사입력 : 2016-01-06 07:00:00



영산대(총장 부구욱) 해양레저사업단(단장 김철우)은 부산 3개 어촌계, (사)한국스포츠시설협회, (사)FEE-KOREA와 '산·학·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석호기자

김석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경상일보

[인쇄하기](#) [창닫기](#)[홈](#) > [뉴스](#) > [사회](#) > [종합](#)

영산대, 부산 어촌계 3곳과 업무협약

2016년 01월 05일 (화)

김갑성

해양관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어촌계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산업체와 함께 힘을 모아 눈길을 끈다.

영산대학교 해양레저사업단(단장 김철우)은 5일 최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의 3개 지역 어촌계(해운대구 미포·우동어촌계, 수영구 민락어촌계), (사)한국스포츠시설협회, (사)FEE-KOREA와 공동으로 '산·학·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어항·어장과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레저상품 개발 △어민들의 해양관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개최 △어촌관광레저 홍보전략 수립 △어촌특화자원의 관광상품 개발 △어촌관광레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업무 협약에서는 과거 수산업 중심의 어촌항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레저·문화·휴식 공간 등이 복합된 명품 브랜드 어항으로 만들기 위한 민간 어촌계의 자발적 노력이 돋보인다.

김철우 해양레저사업단 단장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해운대·광안리에 위치한 3개의 어촌계가 한국최고의 어촌관광지로 변모하고 동북아 최고의 도심어촌형 해양레저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어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인쇄하기](#) [창닫기](#)

영산대, 부산지역 3개 어촌계·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역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위해 '산·학·민' 협력키로
어촌항을 관광·레저·문화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김광현 기자 ghkim@hankooki.com



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부산지역 3개 어촌계·산업체 관계자들이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학·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영산대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김광현 기자] 해양관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어촌계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함께 힘을 모아 눈길을 끈다.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해양레저사업단(단장 김철우)은 최근 해운대캠퍼스에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의 3개 지역 어촌계(해운대구 미포어촌계·우동어촌계, 수영구 민락어촌계), 한국스포츠시설협회, FEE-KOREA와 공동으로 '산·학·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항·어장과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레저상품의 개발, 어민의 해양관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어촌관광레저 홍보전략 수립, 어촌특화지원의 관광상품 개발, 자발적 어촌마리나 역(驛)사업, 어촌관광레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토론회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에서는 과거 수산업 중심의 어촌항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레저·문화·휴

식 공간 등이 복합된 명품 브랜드 어항으로 만들기 위한 민간 어촌계의 자발적 노력이 돋보인다. 이들 어촌계는 여름철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해 해파리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은 물론 부산의 해양관광발전을 위해 생업인 미역양식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연안정비사업과 자율어업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철우 해양레저사업단장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해운대, 광안리에 위치한 3개의 어촌계가 한국 최고의 어촌관광지가 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최고의 도심어촌형 해양레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어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는 동남권 체능계열 중 유일하게 교육부 특성화사업(CK-1)을 유치했다. 또한 부산지역 해양레저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레저 전문인력 육성 및 해양레저 관광서비스 콘텐츠 사업화를 위해 2차년도 ‘해양스포츠레저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스포츠시설협회와 FEE-KOREA는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관광시설의 융합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16-01-04 17:57:56

Copyright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All rights reserved.

영산대, 지역 어촌계·산업계와 업무협약

대학경제 권현수 기자 | 입력 : 2016.01.04 22:45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0420557476630&type=1>

복사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해양레저사업단(단장 김철우)이 지난 12월 31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 3개 지역 어촌계와 (사)한국스포츠시설협회, (사)FEE-KOREA와 산·학·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어촌계는 △해운대구 미포어촌계 △우동어촌계 △수영구 민락어촌계다.

이번 협약으로 △어항·어장과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광레저상품 개발 △어민의 해양관광 인식개선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어촌관광레저 홍보전략 수립 △어촌특화지원의 관광상품 개발 △자발적 어촌마리나 역(驛)사업 △어촌관광레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어촌계는 여름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해파리와 해적생물 불가사리 제거 등 다양한 지역봉사활동과 연안정비사업 및 자율어업 등에 협력한다.

해양레저사업단 김철우 단장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해운대, 광안리에 위치한 3개 어촌계가 한국 최고의 어촌관광지가 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최고의 도심어촌형 해양

레저거점이 되도록 지역 어민들과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는 교육부 특성화사업(CK-1)을 유치했으며, 해양스포츠레저 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 산·학·민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뉴스 기자

입력 : 2016-01-04 [10:40:26] | 수정 : 2016-01-05 [11:34:15] | 게재 : 2016-01-04 (면)



해양관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지역 해운대구 미포어촌계와 우동어촌계 그리고 수영구 민락어촌계의 3개 어촌계가 광역적 협력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과 (사)한국스포츠시설협회 및 (사)FEE-KOREA와 함께 세계적인 어촌관광레저도시로 만들기 위한 산·학·민 업무협약을 지난 31일 체결했다.

해운대와 광안리에 있는 3개의 어촌계는 여름철 해수욕객의 편익을 위하여, 해파리제거 및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 등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은 물론 부산의 해양관광발전을 위하여 생업인 미역양식장의 포기과 연안정비사업 및 자율어업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어항·어장과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레저상품의 개발, 어민의 해양관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어촌관광레저 홍보전략 수립, 어촌특화지원의 관광상품 개발, 자발적 어촌마리나 역(驛)사업, 어촌관광레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토론회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하게 된다.

현재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해양레저관광학과는 동남권 체능계열 중 유일하게 교육부 특성화사업(CK-1)을 유치하여 부산지역 해양레저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레저 전문인력 육성 및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콘텐츠 사업화를 위해 2차년도 ‘해양스포츠레저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협회와 FEE-KOREA는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관광시설의 융합화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게 된다.

호텔관광대학(학장 박대환) 해양레저사업단장 김철우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해운대, 광안리에 위치한 3개의 어촌계가 한국 최고의 어촌관광지가 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최고의 도심어촌형 해양레저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어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협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국 news@busan.com



주소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우)601-738 전화번호 : 051)461-4114 COPYRIGHT (C)
2015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webmaster@busan.com

영산대, 부산지역 3개 어촌계·산업체와 업무협약

정하균 기자 (a1776b@ajunews.com) | 등록 : 2016-01-05 03:37 | 수정 : 2016-01-05 03:37



[사진제공=영산대]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단장 김철우)은 최근 해운대캠퍼스 A동에서 부산의 3개 지역 어촌계(해운대구 미포어촌계, 우동어촌계, 수영구 민락어촌계), (사)한국스포츠시설협회, (사)FEE-KOREA와 공동으로 '산·학·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항·어장과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레저상품의 개발 △어민의 해양관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어촌관광레저 홍보전략 수립 △어촌특화지원의 관광상품 개발 △자발적 어촌마리나 역(驛)사업 △어촌관광레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토론회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부산 3개 어촌계 업무협약

노주섭 기자

입력 : 2016.01.05 09:46 | 수정 : 2016.01.05 09:46



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은 최근 해운대 미포·우동·민락 등 3개 어촌계를 비롯한 (사)한국스포츠시설협회, (사)FEE-KOREA 등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학·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 미포어촌계, 우동어촌계, 수영구 민락어촌계 등 3개 어촌계와 (사)한국스포츠시설협회, (사)FEE-KOREA 등이 광역적 협력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학·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어촌계는 여름철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해 해파리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 등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은 물론 부산의 해양관광발전을 위해 생업인 미역양식장의 포기, 연안정비사업과 자율어업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어촌의 고령화와 어민소득 감소로 정체기에 있는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발전과 해양관광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어항, 어장과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레저상품의 개발, 어민의 해양관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어촌관광레저 홍보전략 수립, 어촌특화위원의 관광상품 개발, 자발적 어촌마리나 역(驛) 사업, 어촌관광레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토론회 등의 사업을 공동진행하게 된다.

현재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는 동남권 체능계열 중 유일하게 교육부 특성화사업(CK-1)을 유치해 부산지역 해양레저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레저 전문인력 육성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콘텐츠 사업화를 위해 2차년도 '해양스포츠레저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협회와 FEE-KOREA는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관광시설의 융합화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게 된다.

호텔관광대학(학장 박대환) 해양레저사업단장 김철우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해운대, 광안리에 위치한 3개의 어촌계가 한국 최고의 어촌관광지가 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최고의 도심어촌형 해양레저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어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 어촌계 3곳과 협약

관광활성화 산·학·민 협력

노주섭 기자

입력 : 2016.01.05 18:59 | 수정 : 2016.01.05 18:59



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은 최근 해운대 미포·우동·민락 등 3개 어촌계를 비롯한 한국스포츠타일협회, FEE-KOREA 등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학·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산대 해양레저사업단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 미포어촌계, 우동어촌계, 수영구 민락어촌계 등 3개 어촌계와 한국스포츠타일협회, FEE-KOREA 등이 광역적 협력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학·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어촌계는 여름철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해 해파리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 등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은 물론 부산의 해양관광발전을 위해 생업인 미역양식장의 포기, 연안정비사업과 자율어업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어촌의 고령화와 어민소득 감소로 정체기에 있는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과 해양관광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어항, 어장과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레저상품의 개발, 어민의 해양관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어촌관광레저 홍보전략 수립, 어촌특화지원의 관광상품 개발, 자발적 어촌마리나 역(驛) 사업, 어촌관광레저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토론회 등의 사업을 공동진행하게 된다.

현재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는 동남권 체능계열 중 유일하게 교육부 특성화사업(CK-1)을 유치해 부산지역 해양레저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레저 전문인력 육성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콘텐츠 사업화를 위해 2차연도 '해양스포츠타일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협회와 FEE-KOREA는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관광시설의 융합화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게 된다.

호텔관광대학(학장 박대환) 해양레저사업단장 김철우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해운대, 광안리에 위치한 3개의 어촌계가 한국 최고의 어촌관광지가 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최고의 도심어촌형 해양레저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어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